

열왕기하 12. 유다 왕 ‘요아스’의 어리석은 통치 (왕하 12 장 1-21 절)

들어가기

본 장은 대제사장 ‘여호야다’의 도움으로 남유다의 제 8대 왕이 된 ‘요아스’의 통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‘요아스’는 ‘여호야다’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등 선한 통치를 행했지만, ‘여호야다’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. 그러다 급기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외치던 ‘여호야다’의 손자, ‘스가랴’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.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람 왕 ‘하사엘’의 손을 빌어 ‘요아스’와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.

1. ‘요아스’ 왕의 통치 개요 (1-3 절)

1) ‘요아스’는 ‘예후’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7년이 되었을 때,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. (1 절)

- 그럼 ‘요아스’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? _____세
 - 그의 아버지는 유다 왕 ‘아하시야’였고, 어머니는 ‘시비아’로 **브엘세바** 사람이었음!
 - 참고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, 곧 헤브론 남동쪽 약 45km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성지 중 하나였음!
 - 따라서 ‘요아스’의 어머니는 아버지 ‘아하시야’와는 달리, 종교적/신앙적으로 보다 더 경건하게 자라났다고 추측할 수 있음!!
 - 만약 ‘요아스’의 통치 기간 동안 그녀가 살아있었다면, 이런 ‘시비아’의 신앙은 분명히 ‘요아스’의 초기 통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!

- 그럼 당시 ‘요아스’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, 되어야 했던 배경은?
 - 할머니 ‘아달라’ 여왕의 악행!
 - 고모 ‘여호세밧’과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던 ‘여호야다’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_____간 숨어 지내며 안전하게 자라남!
 - 그 후 제사장 ‘여호야다’의 지혜롭고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‘다윗’의 왕권을 회복함!

2) 그런데 성경은 ‘요아스’가 제사장 ‘여호야다’의 교훈을 받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. (2 절)

- 이 말은 결국 ‘여호야다’의 교훈을 받지 않을 때부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!
- 결국 그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!
 - ex: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을 찾도록 방치하였음.

2. ‘요아스’의 선정 -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다! (4-16 절)

1) ‘요아스’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 (4-16 절)

- 참고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?
 - 5대 여호람 (8년) - 6대 아하시야 (1년) - 7대 아달랴 (8년)로 이어지는 총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받쳐질 모든 종교세와 헌금들이 바알 신전으로 착취됨!
 -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물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사용되기 위해 착취함!
 - 그로 인해 성전금고는 비었고, 곳곳은 허물어지고 망가져버림!
 - 특별히 '아달랴'의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앞장서서 허물고 망가뜨렸다고 역대하 24장 7절은 기록!
 -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자리를 잃고 떠날 수 밖에 없었음!
 - 곧 온전한 성전예식이 그 동안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었음!!

-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란 '요아스'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 '여호야다'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노력함!

- 이때 '요아스'가 제사장들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이 하나 있었음!
 -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금,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써 성전에 드려야 하는 종교세를 다시 걷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함!!

-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함!
 - '요아스'가 왕이 된지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는 마무리 되지 못함!
 - 결정적인 원인은? → 제사장들이 직접 세를 걷으니까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!
 - 15년동안 안내던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!
 - 또한 그 일을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!

- 따라서 '요아스'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됨!
 - ①. 제사장이 직접 세를 걷지 말고 성전 문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,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전세를 넣고 들어가도록 지시함!
 - ②. 이와 함께 공식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를 드리라고 왕명으로 선포함!!
 - ③. 이후 걷어진 세금을 제사장이 직접 관리하지 말고,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넘겨 저들이 직접 일꾼들에게 주며 성전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함! (ex: 공적인 재정부를 운영시킴!)
 - ④. 성전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는 성전을 장식하거나 다른 잔치들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제한시킴!. (긴축재정을 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는 것!)
 - ⑤.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'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'은 성전 재건에 사용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령함.

- 이런 '요아스'의 정책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성전 재건은 빠르게 완성되었음!
 - 참고: 역대하 24장 13-14절

‘기술자들이 말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.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.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’

3. 요아스의 악정 → 참고: 역대하 24 장 15-22 절

1) 대제사장 ‘여호야다’가 죽자 ‘요아스’는 유다 방백들의 소리를 들으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! (15-18 절)

- 우선 대제사장 ‘여호야다’는 130 세까지 장수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,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큰 축복을 받음!
 - 특별히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**선을 행한 사람**이라고 기록!
- 이때 유다 지도자들은 ‘요아스’를 찾아가 아첨과 유혹의 말로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아세라 목상을 허락하고 우상 숭배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!
 - 결국 ‘요아스’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 주면서 여호와를 버리고, 예루살렘 성전을 외면하게 되면서 다시금 유다에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음!

2)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‘요아스’에게 보내어 여러 차례로 경고하시며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. (19-22 절)

- 그러나 ‘요아스’는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치 않았고, 급기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던 ‘스가랴’ 선지자를 **성전 뜰에서**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함!!
 - 참고 1. 역대하 24 장 20 절은 그를 제사장 ‘여호야다’의 아들로 표현했지만, 정확하게는 ‘여호야다’의 아들 ‘바라갸’의 아들로, ‘여호야다’의 손자가 됨!
 - 참고 2. 본문의 ‘스가랴’는 구약 성경 ‘스가랴’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님!
 - 구약 성경 ‘스가랴’를 기록한 ‘스가랴’는 ‘베레갸’의 아들임.
 - 참고 3. 당시 돌에 맞아 죽어가던 ‘스가랴’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?
 - ‘주께서 이 일을 정확히 보시고, 내 한을 갚아 주소서!’
- 결국 ‘요아스’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보호해 주고,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‘여호야다’의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됨!
- 이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‘요아스’와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심!!

4. 아람 왕 ‘하사엘’의 남유다 침략 (열왕기하 12 장 17-21 절)

1) 17 절 주목하면, ‘그때에’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기록!

- 그럼 그때는 언제인가?
 - ‘스가라’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은 지 일주년이 된 때! (역대하 24 장 23 절)
 - 곧 아람 왕 ‘하사엘’의 유다 침공은 하나님을 떠난 ‘요아스’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란 사실을 주목하게 함!
- 2) 그럼 이때 ‘요아스’의 반응은 어떠했나요?
-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보다는, 역대 왕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신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‘하사엘’에게 받침!
 - 이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드신 생각이 있다면?
 -
 -
- 3) 이때 본문 18 절을 보면, ‘요아스’의 조공을 받은 ‘하사엘’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, 역대하 24 장의 기록을 보면, 떠나지 않고 그대로 유다를 공격했음!!
- 그로 인해서 ‘요아스’는 군대를 이끌고 저들을 대항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됨!
 - 특별히 역대하 24 장 24 절을 주목하면, ‘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,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,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’
 - 결국 아람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아람보다 더 큰 군대를 가지고도 패한 ‘요아스’는 부상까지 입게 됨!
- 4) ‘요아스’가 패전하고 부상을 입게 되자, 그의 신복들인 ‘시므앗’의 아들 ‘요사갈’과 ‘소멜’의 아들인 ‘여호사바드’는 반역을 일으키고 ‘요아스’를 시해하였습니다. (20-21 절)
- 그로 인해 ‘요아스’는 47 세의 나이로 불행하게 생을 마친 후 다윗 성에 장사됨!
 - 이때 21 절 주목하면, ‘요아스’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없음!!
 - 참고로 역대하 24 장 25 절은 그가 다윗 성에서는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!!
 - 그 후 ‘요아스’의 아들 ‘아마샤’가 제 9 대 유다 왕이 됨.
5.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?
6. 중보기도 나눔